

'225:75' 패트 선거법 통과 땀 호남 선거구 7곳 사라진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광주 2구, 전남 2구, 전북 3구 등 통폐합 대상 되는 지역구는 전국적으로 총 26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광주 동남을, 여수시강 등 인구하한선에 미달된 광주·전남 지역구에서는 출마예정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선거법이 개정되면 영남에서도 8석이 줄지만 호남에 비해 영남의 현 의석수가 3배라는 점에서 호남 정치의 위상이 크게 하락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향후 치러지는 각종 선거에서도

광주 2구·전남 2구...전국 26곳
선관위 획정위 국회 자료 제출
호남 정치 위상 추락 불가피

인구수를 기반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광주·전남지역의 민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선거구 축소를 최소화하는 정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

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31일 대한민국 인구(5182만6287명)를 기준으로 추산한 '인구미달' 지역구는 총 26곳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는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300석)를 유지하되 지역구(253→225석)를 줄이고 비례대표(47→75석)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선거구획정위는 총인구수를 선거법 개정안에 명시된 지역구 의석수(225석)로 나눈 1석당 평균 인구수(23만340명)를 기준으로 지역구 인구 상·하한 조건(15만3560~30만7120명)을 산출해 지역구를 분석했다. 선거구 인구수가 이 범위에서 벗어날 경우 통폐합 또는 분구 대상이 된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10곳(서울 2구, 인천 2구, 경기 6곳), 호남 7곳, 영남 8곳(부산 3구, 대구 1구, 울산 1구, 경북 3구), 강원 1곳 등이 통폐합 대상이다.

광주의 경우 동남을(14만4988명·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 서구를(14만9493명·대한신당 천정배 의원) 등 2곳이 통폐합 대상이다. 전남은 여수시강(13만5150명·대한신당 이용주 의원), 여수시을(14만7964명·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등 2곳이 통폐합 대상이다.

전북은 익산시강(13만7710명·민주당 이춘석 의원), 남원시·임실군·순창군(14만731명·무소속 이용호 의원), 김제시·부안군(13만9470명·대한신당 김중회 의원) 등 3곳이 하한선 밑이다.

서울에서는종로구(15만2866명·민주당 정세균 의원)와 서대문구(14만8086명·민주당 우상호 의원) 등 2곳이 하한에 미달한다. 경기도에서는 안양시 동안구를(15만2682명·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광명시강(13만6153명·민주당 백재현 의원), 동두천시·연천군(14만541명·한국당 김성원 의원), 안산시 단원구를(14만4427명·한국당 박순자 의원), 군포시강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 신임 대사 신임장 제정식을 마친 후 강경화 외교부장관 및 신임 대사들과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13만8410명·민주당 김정우 의원), 군포시을(13만8235명·민주당 이학영 의원) 등 6곳이 인구 하한에 못미친다. 영남권은 총 8곳이 통폐합 가능성이 높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10곳, 한국당 10곳, 바른미래당 2곳, 대한신당 3곳, 무소속 1곳이 각각 인구 하한 미달 지역구다. 다만 이들 26곳뿐만 아니라 이들의 통폐합을 위해 확정 대상으로 들어오는 지역구까지 고려하면, 이번 선거법 개정안으로 영향을 받게 될 지역구는 60곳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28곳의 지역구를 없애야 하는데 이번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24곳(통폐합 26곳, 분구 2곳)만이 축소되는 것으로, 이번 획정위의 추계는 '개략적 산출 결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정동채 前장관 회장공모 참여 호남출신 첫 KT수장 나오나

3선 국회의원 지낸 친여인사
전·현 임원간 경쟁 구도 변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총리 후보로 거론됐고, 윤 초에는 청와대 비서실장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내리기도

광주 출신으로, 참여정부 시절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낸 정동채(사진) 전 국회의원에게 12위 KT그룹의 차기 회장 공모에 참여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전 장관이 KT그룹의 차기 회장에 선정되면 '호남출신 첫 KT 수장'이 된다.

정 전 장관은 특히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외곽조직인 '더불어포럼' 공동대표를 맡아 대선 막후에서 역할을 했고, 문 대통령의 인도와 호주 특사로 활동한 인연이 있어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15·16·17대 3선 국회의원 출신인 정 전 장관의 참여로 전·현직 KT 임원 간 경쟁으로 흐르던 차기 회장 경쟁 구도 변화도 불가피해졌다.

정 전 장관은 14일 "KT지배구조위원회에 차기 회장 지원 원서를 냈다"고 밝혔다. 광주 서구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정 특사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과 혁신위원장을 맡아 비엔날레 개혁과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했다. 2년 전 문재인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인도·호주를 방문하기도 했다. 최근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최한 '레츠DMZ'의 조직위원장을 맡았다.

정 전 장관은 신군부 집권기인 1980년 해직 기자 출신으로,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을 거쳐 아시아태평양문화재단 김대중 이사장의 비서실장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지소미아 종료 일주일 앞...美 압박 속 고민 깊어가는 문 대통령

오늘 미 국방장관 일행 접견
종료, 원칙적 입장 견지할 듯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일본이 태도 변화 및 한일관계 정상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청와대 내에서도 남은 기간 한일관계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여기에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잇따라 지소미아 연장 의견을 내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등 상황은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을 접견할 예정이다. 이날 접견에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나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도 참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지소미아 문제를 포함, 방위비 분담금 문제나 한미 연합훈련 문제 등 민감한 사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최근 잇따라 지

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의사를 밝혔다. 이 점에서 이날 회동에서도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며 원칙적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한일 갈등에 변화가 없는 한 지소미아 역시 유지하기 어렵다는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3국은 막판까지 치열한 외교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우선

15일에는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열린다.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다음 주 미국 방문과 함께 22~23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외교장관회의의 참석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외교전을 거친 뒤 청와대는 21일(목요일) 혹은 22일(금요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지소미아에 대한 마지막 검토를 거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는 지난 8월 22일에도 NSC 상임위 토론회를 거친 후에 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

/임동욱 기자 tuim@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예정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 (충효동 665-29)

한일솔라에너지

몰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